

부진에 부상... KIA '우울한 일요일'



양현종



김선빈, 어제 NC전 1루 베이스 밟다 넘어져 병원행
복귀 후 공·수에서 알트란 활약... 팀, 다시 타선 고민
올 시즌 일요일마다 불운...6월까지 일요일 7연패

KIA 타이거즈의 '글루미 선데이'다.

KIA 내야에 다시 부상 상황이 발생했다. 허벅지 근육통으로 한 차례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김선빈이 또 쓰러졌다.

김선빈은 5일 NC장원파크에서 열린 다이노스와의 시즌 5차전에서 톱타자로 나와 첫 타석에서 부상을 당했다. NC 선발 라이트와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끝에 6구째 타격이 이뤄졌고, 공은 2루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1루로 내달린 김선빈은 베이스를 밟은 뒤 넘어졌다. 오른쪽으로 베이스를 찍었지만, 베이스를 밟고 있던 1루수 강진성의 발에 왼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다.

전날 주루 과정에서 한 차례 얼굴을 찡그렸던 김선빈은 이번에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고, 구급차를 탄 채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김선빈의 정확한 상태는 6일 광주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

김선빈은 지난달에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9일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나간 뒤 주루 도중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검진 결과 다행히 근육 파열 부상은 피했지만 다음날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김선빈은 10일을 넘겨 지난달 23일 엔트리에 복귀했다.

하지만 김선빈의 복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부상이 있었다.

김선빈을 대신해 엔트리에 등록됐던 '이적생' 류지혁이 6월 14일 SK 와이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부상병이 됐다. 주루 과정에서 근육 파열 부상을 입으면서 KIA에 불던 류지혁발 새바람이 멎었다.

KIA는 올 시즌 일요일마다 표정이 좋지 못하다. 공·수에서 맹활약을 하던 류지혁과 김선빈이 모두 일요일에 구급차를 탔다.

특히 김선빈은 허벅지 통증으로 잠시 쉬었지만 식지 않은 타격감으로 팀 공격 전면에서 서고 있었다.

복귀 후 첫 시리즈였던 키움전에서는 안타 하나씩을 기록하면서 위밍업을 끝낸 김선빈은 지난 6월 3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부터는 톱타자로 나서 4경기 연속 3안타로 필멸 날았다.

공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줬던 김선빈이 부상을 입으면서 KIA는 다시 타선 고민에 빠지게 됐다.

부상이 겹친 일요일, 팀 성적도 좋지 못하다.

KIA는 시즌 첫 일요일 경기였던 5월 10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터커의 멀티홈런 포함 장단 15안타로 12점을 만들면서 승리를 신고했었다.

하지만 이후 5월이 가고 6월이 지나가는 동안 일요일 승리가 추가되지 않았다. 6월까지 일요일 7연패 기록됐다.

패배 과정도 좋지 못했다.

지난 키움전 0-1 패배 등 4경기가 1점 차 패배로 끝났다.

두 경기에서는 선발이 5회를 버티지 못했다. 5월 31일 LG전에서는 기능이 4이닝 5실점, 6월 21일 삼성전에서는 양현종이 4이닝 8실점(7자책점)의 패전 투수가 됐다.

매번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일요일. 이번에는 부상 약재가 찾아오면서 KIA에는 다시 또 우울한 일요일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회초 무사에서 KIA 김선빈이 내야 땅볼을 치고 난 뒤 1루로 달리다 부상을 당해 트레이너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오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무너진 에이스... 필요한건 휴식일까 기다림일까

양현종, 주말 NC전 4.1이닝 8실점 올 세번째 5이닝 전 강판

KIA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이 또 무너졌다. 양현종은 지난 4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양현종은 1-7로 뒤진 4회말 1시 2루에서 고영창으로 교체됐다. 고영창이 등판과 함께 땅볼로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았지만 김찬형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양현종의 책임주자가 흠에 들어왔다.

이와 함께 양현종의 시즌 11번째 등판 기록은 4.1이닝 8실점이 됐다.

1회 2사에서 나성범과 양의지의 연속 2루타로 1실점을 한 양현종은 4회를 연속 안타로 시작했다.

무사 1-2루에서 강진성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으면서 0-3. 이어 희생번트와 희생플라이로 4번째 점수를 줬다.

5회에는 연속 홈런에 고개를 숙였다.

NC 선두타자 권희동이 좌중간 솔로포를 기록했고, 나성범이 우측 담장을 넘기면서 양현종을 상대로 백투백 홈런을 만들었다.

양현종은 양의지를 외야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원아웃은 만들었지만 알테어와 박석민에게 연속 2루타를 맞으면서 강판됐다.

양현종이 5회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올 시

즌 세 번째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5월 5일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3이닝 4피안타 2볼넷 1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고, 지난 6월 21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는 5회 4연속 안타와 함께 아웃카운트를 더하지 못하고 물러났었다. 이 경기에서는 4이닝 10피안타(2피홈런) 2탈삼진 8실점(7자책)이 기록됐다.

양현종은 지난해 29경기에서 나와 184.2이닝을 책임지는 동안 6피홈런에 그쳤지만, 올 시즌 11경기에서 58.1이닝을 던지며 벌써 8개의 홈런을 맞았다.

시즌 평균자책점도 5.55로 상승했다. 또 팀이 2-9로 지면서 시즌 5패째가 기록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개막전 준비 잘하고 있다”

토론토 단장 현지 언론과 인터뷰...“기복없는 선수, 활약 기대”

변수가 많은 2020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기복 없는 투수’ 류현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낸다.

토론토는 5일 “류현진이 합류하면서 토론토는 2019년보다 안정된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다”며 “개막전 등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토 단장 로스 앳킨스는 현지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했다. 당연히 취재진은 류현진의 몸 상태에 대해 물었다.

앳킨스 단장은 “류현진은 매우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주) 더블린에서 훈련했고, 구단 관계자들이 영상 통화를 훈련 경과를 파악했다”며 “류현진은 개막전 선발 등판이 가능한 최상의 상태다. 류현진을 포함한 선발 투수 후보들은 플로리다에서 1~4이닝 라이브 피칭을 했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규시즌 개막을 미뤘던 미국 메이저리그는 이달 24일 혹은 25일을 ‘2020시즌 개막일’로 정하고 ‘여름 캠프’를 준비 중이다.

앳킨스 단장은 “더블린에 모인 선수들은 내일 (한국시간 6일)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정규시즌 60경기씩을 치른다. MLB닷컴은 토론토를 ‘월드시리즈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5개 팀 중 하나로 꼽았다.

MLB닷컴은 “토론토는 주전 대부분이 20대인 젊은 팀이다. 단축 시즌에 젊은 타선의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다”며 “류현진은 장기 레이스에서는 부상 위험이 있지만, 짧은 기간에는 압도적인 투구를 한다”고 장점을 분석했다. /연합뉴스

‘연봉’보다 ‘건강’

다저스 투수 프라이어 시즌 불참선언

미국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좌완 투수 데이비드 프라이어(35)가 2020시즌을 포기했다.

프라이어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심사숙고한 끝에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번 시즌을 뛰지 않는 게 최선이라 결정했다”고 썼다.

두 자녀가 모두 4세 이하인 프라이어는 “팀 동료들이 그리울 것이고, 올 시즌 전체는 물론 월드시리즈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올해 뛰지 못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내년을 기대한다”고 썼다.

다저스는 이후 성명을 내고 프라이어의 결정을 지지했다.

시즌 참가를 포기한 프라이어는 경기 수에 비해 배가리 한 올해 연봉을 과감하게 버렸다.

프라이어는 올해 연봉이 3200만달러(약 384억원)지만 경기 수가 162경기에서 60경기로 줄어들면서 약 1180만달러(약 142억원)를 받을 예정이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시즌을 여는 메이저리그는 선수들에게 시즌 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

다만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급여와 서비스 타임은 받지 못한다. /연합뉴스

김민선, 3년만에 감격의 우승

KLPGA 맥콜·용평리조트오픈...통산 5승

김민선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1168일 만에 우승, 통산 5승을 달성했다.

김민선은 5일 강원도 평창군 버치힐 골프클럽(파72·6434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맥콜·용평리조트오픈(총상금 6억원)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김민선은 공동 2위 이소영(23)과 성유진(20)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 2000만 원이다.

키 175cm의 장신인 김민선은 2014년 고진영(25), 백규정(25) 등과 함께 ‘대형 신인’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큰 키에서 나오는 장타가 주특기인 선수다. 공동 2위 이소영과 성유진이 먼저 11언더파로 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2개 홀을 남기고 1타를 앞서 있던 김민선은 17번 홀(파3)에서 첫 고비를 맞았다.

티샷이 그린 우측 뒤편 경계선 주위에 떨어졌고, 약 15m 거리에서 시도한 어프로치 샷이 약간 짧아 약 2m 거리 파 퍼트를 남겼다.

파 퍼트를 넣고 1타 차 리드를 유지한 김민선은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약 6m



거리로 보내 무난히 파를 지키고 우승 트로피도 품에 안았다.

2년 연속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이소영은 공동 2위 상금 5850만원을 받아 시즌 상금 3억5543만원을 기록, 상금 1위였던 김효주(25)의 3억2454만원을 제치고 상금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